불기 2565(2021)년 신년특집호
A · B · C 섹션 68면 발행


신년 데스크 초대석 A6~7
태고종 종정예하 지허 대종사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정념 스님 · 석길암 · 민정희
A14~15

불교와 흰소 A27

신년법어 · 신년사 B11~13

신년 특집

불교, 기후 위기에 답하다 A9~11



한국禪 1200년 B1 · 2 · 3 · 6 · 7



THE PEOPLE 신축년이 기대되는 사람들


정순균 강남구청장
C1~2


지인스님 기쁨정사 주지
C3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C4~5


정영자 통도사 영축문학회장
C6


김유진 불교굿즈 크리에이터
C7

‘코로나+ing’… 조심스레 주요사업 기지개

2021년 신축년 주요 종단 · 단체 사업 살펴보니

코로나 확산에 신년행사 취소
조계종 12월 中 새 종정 추대
교구본사 3곳 주지 임기 만료
연등회 대규모 행렬 ‘장고 중’
인물 조명 세미나 다수 예정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는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랍 27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3일까지 유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주요 종단과 단체들의 신년행사다. 신년 초에는 종정예하 주석 사찰을 찾아 신년하례를 드리는 것이 관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적인 신년하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경우 1월 12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를 모시고 진행하는 신년하례법회를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원장급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봉행됐던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는 연기될 전망이다. 품서 대상자가 50명 이상이어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품서식 봉행 시기는 3월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매년 진행됐던 종단지도자 신년하례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종단협 관계자는 “현재 1월 26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 예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축소 등 여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불교계는 연등회를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존의 연등법회와 전시, 부대 행사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대규모 연등행렬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에는 주목할 만한 종단적 이슈들이 적지 않다. 먼저, 조계종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는 종정 추대가 오는 12월 중에 이뤄진다. 조계종 종헌과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은 승납 45년, 세납 70세 법계 대종사인 행해가 원만한 비구여야 한다. 종정추대를 위한 종정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원로의장이 소집한다. 회의에는 원로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지난해 조계사에서 봉행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봉행이 불투명하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종정은 전계대화상을 위촉하며, 종헌 종법에 따라 포상과 징계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제적 2/3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올해에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5월), 제6교구본사 마곡사(9월)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가까운 주지 선출은 은해사다. 은해사는 차기 주지 후보 선출 위한 산중총회를 1월 15일 육화원에서 진행한다. 현 주지 돈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이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조계종 현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도 관심사다. 긴축 재정에도 결집 불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실제, 불교요양원 설계 예산으로는 3억 원이 책정됐으며, 계룡대 홍제사 건립 불사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배정됐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에는 36억 원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사업에는 13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바 있다.

주요 불교 단체들의 신년 계획에 중요한 변곡점은 코로나19다. 단체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행사를 준비 중이다.

주요 학회들은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고승 조명 학술대회들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16일 만화 희찬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구하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사학회는 보조국사 지눌과 선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추진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올해에도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또한 학회 학술지 〈한마음연구〉 등재지 지원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묘공학술상,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진행된다.

각 사회단체들은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인식개선 및 개인 실천을 이끌어 온 불교기후행동이 2021년에는 조계종 등 주요종단과 전국 교구본사 등 연대를 통한 범위확대에 주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불교계 안팎의 공동연대 및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별받는 모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대,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을 예의주시하며 발의를 저지하고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눔의집 이사들,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

남부경찰청, 구랍 18일 통보

지난해 6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하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했다. 이는 “법인 이사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해 온 일부 내부직원들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경찰조사 결과 이사들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주목된다.

나눔의집 측은 12월 18일 “전 · 현직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관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기부금 모집 미등록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나눔의 집 대표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법인의 직원 · 사용인 등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표자도 처벌하는 행정형벌)에 따라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눔의 집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학대하거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운영진이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만으로 나눔의 집을 꾸려 가다 보니 마음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지적받은 위법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은 올 5월경 일부 내부 직원들이 나눔의집 이사들이 후원금을 유용하고 할머니들을 학대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광주시와 경기도청 감사 결과 횡령 및 사적 유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도청이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재 경기도청은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최종통보했으며, 이는 경찰 조사결과와 상반돼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A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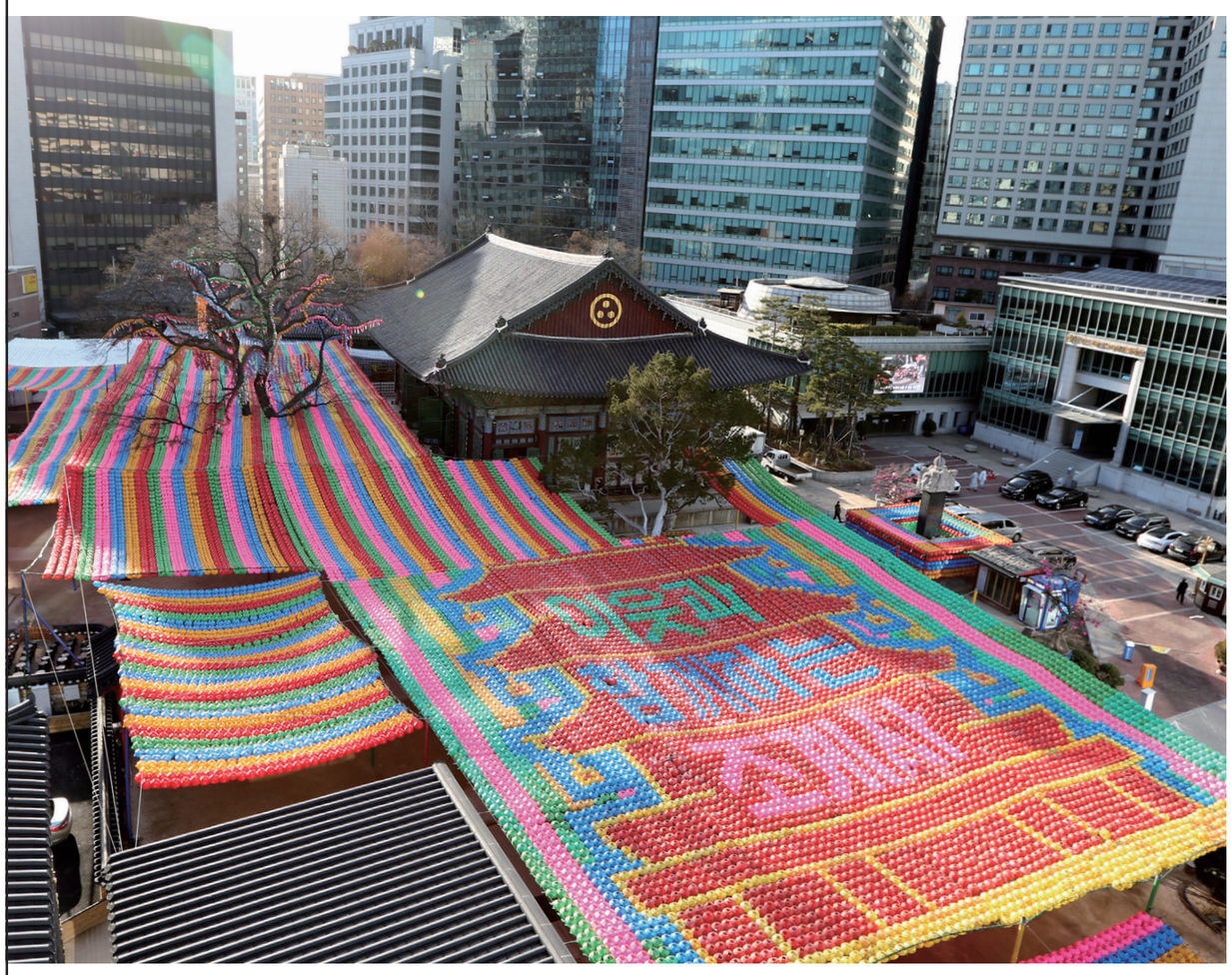
치유 코로나 블루로 칭해지는 국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국민치유 행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새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사회공헌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힐링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도시락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명상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다.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은 명상과 과학, IT, 심리상담 등이 접목돼 대중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화선 · 위빠사나와 같은 전통 수행과 새롭게 만들어진 응용 · 체험 명상법들도 소개될 예정이다. 동국대 명상페스티벌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내 중강당서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스마트 쉼 사업을 통해 각종 중독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우울증과 각종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언택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살림법회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위로법회도 하반기에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축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